

광주 도심 교통난 해소 2025년까지 5개 도로 신설한다

국토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확정
2순환로·북부순환로~기존 간선도로 연결 등 1230억 투입

정부가 광주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230여억원을 투입, 5개 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1~2025)을 마련해 지난 23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에는 광주 등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총 23건(65.6km)의 도로건설 사업이 선정됐다. 광주 5건, 인천 5건, 부산 3건, 울산 1건, 대구 5

건, 대전 4건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각각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조 9000억원으로, 국비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지원 규모는 3차 계획(9000억원)보다 33%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번 4차 계획에는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의 차량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광역도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축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높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광주는 제2순환도로·북부순환도로와 기존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사업 등이 선정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간선도로망의 효율성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광주의 5개 교통혼잡도로 개선 대상지는 진월동-봉선동 도로개설(연장 800m·4차로, 공사비 491억원), 경찰청사-상무로(1km·4차로, 249억원), 각화동-제2순환도로(400m·1차로, 144억원),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1.2km·1차로, 73억원), 금호동-서광주로(600m·4차로, 275억원) 등이다. 다만 이번 총사업비는 추정 사업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광주에서 제1~3차 대도시권 교통혼

잡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1차 하남산단 외곽도로, 북부순환도로,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2차 상무지구-침단동간 도로개설, 3차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광주 용두-담양간 도로개설 등이다. 김효정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해소돼 국민 편의가 증대되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비용과 대기오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면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흑산공항 건설 여부 하반기 국립공원위서 결정

국립공원 구역조정협 공원위 상정

지난 23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에서 흑산공항 안건을 다시 공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흑산공항 건설 여부는 올 하반기 예정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흑산공항 예정부지인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대신 다른 부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신안군, 전남도,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25일 국토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흑산공항 예정부지가 포함돼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

원을 대상으로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 총괄협의회’가 열렸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국립공원이 위치한 12개 시도 환경 분야 국장과 국립공원, 주민대표,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총괄협의회는 이날 흑산 공항 예정부지의 대체 부지로 비금도 해변 등을 제시한 전남도의 안건을 수용,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미 청와대 정부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실이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남도, 신안군 등의 의견을 직접 조율했다는 점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흑산공항은 고시 등 행정절차만 거쳐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흑산공항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와 대체 부지 제고를 수용할 것인지다.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환경부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50인 탑승 소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활주로 연장 1.2km짜리 공항 건설을 위해 국비 1833억원을 투입한다. 흑산도 및 인근 부속도서 주민에게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서남해안 해양주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지난 5일과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수산피해를 입은 진도군 수유리 청룡마을을 방문, 피해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답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집중호우 수산양식 피해 진도 방문

청룡어촌계 복구 현장 둘러 봐
어업인 “전복 치패 입식비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4일 진도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산양식 분야의 복구현장을 살피고, 시름에 빠진 어업인을 위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남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지역의 복구상황을 파악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수산피해 현장 방문은 지난 12일과 17일 강진 등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지사는 진도군에서 가장 피해가 큰 청룡어촌계를 방문해 복구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 어업인을 위로했다. 어업인들은 “전복 치패 입식비 지원, 가두리 그물망 설치사업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하루 빨리 피해 복구를 마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들이 요구한 사업들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 또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어장재배치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전복 판로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해 반영시킨 바 있다. 또 어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치패 입식비 지원을 건의, 23일 정부추경에 국비 20억원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5일에서 8일까지 진도 460mm를 비롯해 강진 392mm, 장흥 390mm, 보성 388mm 등 남부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도내 5개시·군, 264여가에서 696억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형 AI 뉴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 참석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형 AI-뉴딜 추진위’ 출범

‘광주형 인공지능(AI)-뉴딜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용섭 시장과 조환익 전 한전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3개 분과로 구성해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광주시 AI 뉴딜 정책자문관으로도 위촉된 조 위

원장은 1년여간 광주시 에너지 신산업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이길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장이 디지털 뉴딜, 김광란 광주시의회의 의원은 그린 뉴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휴먼 뉴딜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전 전남도, 서울서 잇단 개최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어가를 돕기 위해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29일까지 롯데백화점 분당점에 직거래장터를 운영, 농민이 당일 수확한 신선한 과일류, 채소류 등 식생활에 필요한 200여 상품을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대표 품목은 장성 복숭아·사과, 나주 토마토·잡곡, 영광 굴비·모시떡, 여수 갯김치, 신안 젓갈, 보성 녹차, 진도 해조류, 담양 고추장·된장 등이다. 전남도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판매부스 설치, 현수막 제작, 앞치마·손소독제 등 위생·방역 용품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전남도와 롯데백화점은 업무협약 후 롯데백화점 강남점, 노원점 등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4억1천3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분당점에 이어 강남점, 본점 등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점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 김스클럽 아답점에 서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에너지자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연계용량 전력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